

No.44

# Japan Weekly Digest

2010. 7. 19 ~ 7. 25

## □ 금주의 이슈

- 엔화 강세, 작년 12월 이후 최고치(86엔) 기록
- 중국인 관광비자 완화, 한국과 경쟁격화
- LG화학, 이차전지 일본에 공급예정

## 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정부예산, 작년 수준으로(71조엔) 결정
- 총무성, “2010 ICT 국가경쟁력” 발표
- 경단련, 여름 보너스 통계 3년 만에 증가

## 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경산성, 태양열 전량매입제도 결정 발표
- 소비전력을 10분의 1로 줄이는 휴대용기술 개발
- 미쓰비시, 신흥국 인프라에 2.5조엔 투자

## 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“신성장전략”의 조기실행을 제안 (일본경단련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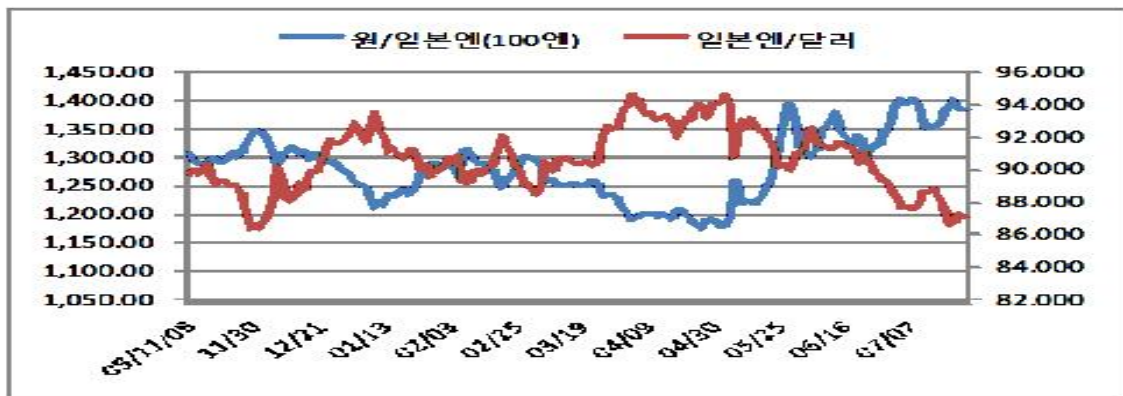
**한일경제협회**  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 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 
(Tel.02-3014-9888)

## □ 금주의 이슈

- 엔화 강세, 작년 12월 이후 최고치 (86엔 후반) 기록
  - 2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에 대한 달러 환율이 지난 주말보다 47전 내린 86엔 76전으로 거래. 원/엔 환율은 19일, 1,400원을 돌파
  - \*엔화는 작년 12월말 이후 최고치 기록
-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국제투자자금이 안전자산으로의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, 엔화 가치가 오른 반면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임



- 중국인 관광비자 완화, 한국과 경쟁격화
  -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에 대한 개인관광 비자 발급요건이 대폭 완화. 「관광 대국」을 지향하려는 일본의 중국인에 대한 비자 규제 완화 조치로 중국인 여행객 확보에서 한국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
  - 일본정부는 부유층에 한정된 중국인의 비자 발급 대상을 중간층까지 확대
    - \*연봉 340만 엔 이상이었던 조건을 80만 엔까지 낮춤
  - 입국자가 가장 많은 나리타공항의 주변시설에 대한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시설정비를 강화할 예정(미쓰비시는 나리타공항 인근에 대형아울렛 건설계획 발표)
- LG화학, 이차전지(리튬이온) 일본에 공급예정
  - LG화학은 20일, 기자회견에서 유럽과 일본에도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전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닛케이신문이 보도
  - LG화학은 올해 중대형 이차전지 공급회사를 GM, Ford를 포함한 7개에서 1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
  - \*삼성SDI와 LG화학의 올해 실적을 합하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

## □ 일본 정재계 소식

### ○ 정부예산 규모 작년수준으로(지출 71조엔 이하) 결정

- 정부는 20일, 예산 편성에 관한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2011년도 예산요구 기준에 대해 협의. 국채발행비용을 제외한 세출 상한 규모를 71조엔 이하로 편성할 방침을 결정했다고 발표

- 내년 예산안은 과거 최대 규모였던 2010년의 예산(92조엔)을 상회하지 않도록 설정한다는 것이 목표

\*2011년 재정운영전략에서 세출을 2010년도와 비슷한 71조엔 이하로 억제하고, 신규 국채발행 상한액도 44조엔 이하로 축소할 방침. 삭감된 예산은 의료나 환경 등 성장 산업분야에 집중 배정할 계획

### ○ 총무성, “2010 ICT 국가경쟁력” 발표

- 총무성은 20일, 정보통신기술(ICT)관련 제품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. 액정TV, 휴대폰, 액정디바이스 등 17품목에서 일본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년 전에 비해 떨어졌다고 분석

\* 시장점유율이 25%이상 차지하는 일본기업의 제품은 10품목으로 조사

품목	08년도	09년도	10년도	증감(08→10)
액정TV	42.9%	43.4%	30.6%	△12.3
휴대용 액정디바이스	50.1%	45.7%	35.7%	△14.4
노트PC	23.8%	21.7%	18.5%	△ 5.3

### ○ 경단련, 여름 보너스통계 제조업 회복으로 3년 만에 증가

- 경단련은 20일, 대기업 163사를 대상으로 여름보너스 지급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, 기업의 평균지급액은 작년대비 0.55% 증가한 76만 엔 수준

- 자동차, 전기업종의 경기회복에 의한 것으로 제조업 전체로는 1.02% 증가한 74만(비제조업은 0.77% 감소한 80만 엔 수준)

- 세계동시불황의 영향으로 조사 이래 최대로 하락했던 작년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는 회복되었으나, 철강(△25.06%, 63만 엔), 기계금속(△17.37%, 70만 엔)등 크게 감소한 업종도 있음

## 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### ○ 경산성, 태양열 전량매입제도 결정 발표

- 경산성은 21일,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 전량매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. 10년 후 가구당 월평균 최대 200엔 정도 부담시킬 계획
- 경산성은 국민 부담에 대해 지구온난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
- 부담액을 150~200엔으로 설정할 경우, 10년 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2300~2900만 톤 정도 삭감될 것으로 추정

### ○ NEDO, 소비전력을 10분의 1로 절감시키는 휴대용기술 개발

- 산케이신문은 20일, NEDO(신에너지·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)가 반도체회사 엘피다메모리, 도쿄대학과 공동으로 휴대폰, 모바일 PC 등의 소비 전력을 10분의 1로 절감하는 기술개발에 착수했다고 보도
- 전력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휴대용 정보기기의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지구온난화방지에 공헌하겠다는 것이 목표
  - \*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전략
- 기술개발기간은 3년으로 성공하게 되면, **70만가구분의 배출량에 해당하는 연간 35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(CO2)삭감 예상**

### ○ 미쓰비시, 신흥국 인프라사업에 3년간 2.5조엔 투자

- 미쓰비시상사는 16일, 중장기 경영전략을 발표. 향후 3년간(10~12년) 전력, 물, 환경 등 신흥국 인프라사업에 2.5조 엔을 투자하겠다는 계획
- 전력, 물, 교통, 환경분야를 전략사업으로 설정, 신흥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계획
- 중기계획에는 2010년 3,700억 엔이었던 당기순이익 목표를 2012년에는 5,000억 엔으로 목표를 상향(3년간 ROE는 12~15% 예상)
  - \*중국, 인도, 브라질에 4,000~5,000억 엔 금융에너지자원에 1~1.2조엔 투자 예정

## 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“신성장전략” 조기 실행을 제안 (일본경단련)

2010.7.20

- 일본경제는 회복 국면에 있으나 자립적으로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음
- 디플레문제, 유럽의 금융자본시장 악화, 일본의 인구감소, 고령화 진전의 심화 등 문제가 많이 있으며, 이런 문제 해결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가속화되어야 함
- \*기업의 경영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건정비가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법인세 인하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15년까지 약 60조 엔의 국내매출이 상실될 것으로 경고

## □ 일본기업의 활동 동향과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

- ①성장을 저하에 대한 우려
- ②수요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해외사업 전개
- ③산업의 입지경쟁력 강화 필요성

## □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“신성장전략”의 조기 실행이 필요

- ①글로벌경쟁과 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본경제를 지속성장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
- ②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, 에너지, 관광·지역 활성화, 고용창출 등 문제 해결을 위해 **정량적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**  
-그러나 **법인세 인하,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의 부담 비율 확대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**
- ③경단련이 제안한 **세제 재검토, 행정규제개혁을 통해 2020년까지 명목GDP 1.5%, 실질GDP 0.3% 증가하고 고용도 370만 명 창출될 것으로 전망**
- ④정부는 전략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조기 실행하는 것이 중요(시간과의 싸움)

## □ 정리

- ①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“강한 경제”, “강한 사회 보장”을 구체화함으로써 민간 주도에 의한 **경제성장을 지원**하는 것이 중요
- ②경제계는 성장전략의 중심자로서 기업 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민생활에 공헌하고 **프로젝트에 과감하게 도전**해 나갈 생각임

출처: <http://www.keidanren.or.jp/japanese/policy/2010/063.pdf>

## 【일본 관련 주요 보고서】

## □ 『7월 금융경제월보』 일본은행, 7월17일

- 일본은행은 17일, 7월 금융경제월보에서 자금유통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「완화 방향으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」 고 발표. 2008년 12월부터 기술훈온 「어려운 상황」 이라는 표현을 1년 7개월 만에 바꿈으로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자금유통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

\*출처: <http://www.boj.or.jp/type/release/teiki/gp/gp1007.pdf>

## □ 『도쿄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』 노무라종합연구소, 7월21일

- 도쿄의 약점은 공항에서 도시까지 교통, 외국인이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임.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①국제교통 인프라 강화, ②국제교류거점의 강화, ③관광거점의 형성, ④도시재생 정비 추진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

\*출처: <http://www.nri.co.jp/opinion/region/2010/pdf/ck20100703.pdf>

## □ 『시니어층이 지탱하고 있는 소비회복이 감소국면』 미쓰비시도쿄UFJ, 7월22일

- 2009년 이후, 개인소비는 60세 이상 시니어층에 의한 내구재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. 향후에도 고용·소득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소비의 자립적 회복이 기대되지만, 정책효과의 반감으로 시니어층 소비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개인소비 감축 리스크에 주의해야 함

\*출처: [http://www.bk.mufg.jp/report/ecoinf2010/report\\_jp\\_20100720.pdf](http://www.bk.mufg.jp/report/ecoinf2010/report_jp_20100720.pdf)

## 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7월 19일(월)	(바다의 날) 공휴일
7월 20일(화)	○ 2009 일본 정보경제사회를 위한 기반정비 결과 발표(경산성) ○ 5월 경기동행지수 발표(내각부) ○ 6월 조강생산 발표(철강연맹) ○ <b>김현희 전 북한 공작원 일본 방문</b>
7월 21일(수)	○ 7월 월례경제보고 발표(내각부)
7월 22일(목)	○ 저탄소화 사회 가스사업 검토회 개최(경산성) ○ 베트남과의 원자력협력(연장) 서명(경산성) ○ 경단련 하계 포럼 개최(나가노)
7월 23일(금)	○ 제3회 차세대송배전 시스템제도 검토회의 개최(경산성) ○ 재생에너지 전량매입에 관한 프로젝트 회의 개최(경산성) ○ ASEAN 지역포럼 개최(베트남 하노이)